

‘전통 가무 대향연’ 150인 예술혼 기린다

CULTURE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24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남도시나위·향발무·태평무·진쇠춤 등 40여명 예술인 출연

하늘의 별이 된 전통예술인 150명을 기리는 품격 높은 추모 공연이 펼쳐진다.

동국예술기획 창립 36주년 기념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동국예술기획 (대표 박동국) 이 주최하는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1990년 11월 국립국악원 무대를 시작으로 36년동안 ‘전통의 원형보존과 전승’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뿌리깊은 전통 예술의 정수를 선보여왔다.

113회를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은 ‘하늘과 땅을 잇다’라는 주제 아래 명인·명무의 님을 기리고 그들의 뜻을 이어가는 후대 전통예술인 40여명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보유자 김청만

명인의 ‘남도시나위 합주’로 막을 연다. 시나위는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둔 음악을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앙상블 장르로, 연주자들의 각기 다른 연주 방식을 통해 지역마다 독특한 생명력을 갖고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가장 인기있는 남도시나위는 남도의 무속 음악을 기반으로 강렬한 연주를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 파리 한세현, 대금 원완철, 아쟁 서정호, 해금 이동훈, 거문고 이선화, 가야금 장삼수 등 6인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어 정형숙 한국국악협회 이사의 ‘향발무’를 만나본다. 작은 향발을 양손에 들고 치면서 소리와 춤의 조화를 이루는 전통무용으로, 세상의 복과 흥을 기원하는 궁중무용의 하나다. 박영숙 허복희 이금희 이자향이 5인무를 선보인다.

이밖에 박아림 대전살풀이춤 이수자의 ‘초립춤’,



김청만 명인



국악인 오정혜



김선이 명창



김지원 명무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한민정의 ‘강선영류 태평무’, 허순선 광주대 명예교수의 ‘수건임춤’, 국악인이자 영화배우 오정혜의 ‘상주아리랑’, 이수향 호남살풀이 이수자의 ‘조택원류 가사호첩’, 김영옥 화계 김영옥 무용단 단장의 ‘진쇠춤’ 등이 차례로 펼쳐진다.

또 광주시 무형유산 홍보가 보유자인 김선이 명창이 박시양 교수의 장단에 맞춰 ‘심청가’를 들려주

다. 김지원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한의 정서를 승화한 ‘살풀이춤’을 무대에 올리고, 끝으로 채수정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가 남도 잡가의 대표적인 ‘육자배기’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한다. 육자배기는 유려하면서도 음의 폭이 넓은 잘 짜여진 선율과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어우러져 전라도 음악의 특징이 잘 반영된 잡가다. 주된 내용은 사랑과 이별, 그리움, 인생무상으로 슬픈 정서를 내

포한다. 이날 무대는 한수연 장상희 심윤아 전하영 장예림 등 5인이 함께 선사한다.

공연 예술총감독은 박동국 대표가, 구성기획은 정치희 동국예술기획 기획이사가 맡았다. 사회는 오정혜 국악인이 이끌 예정이다.

동국예술기획은 1989년 설립된 전문예술공연 기획사로, ‘한·중·일 3국의 전통예술 교류공연’, ‘2000년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광주MBC 창사 30주년 기념공연’, 인문학콘서트 ‘시와 노래가 춤을 만나 향기를 배접하다’ 등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해왔다.

박동국 대표는 “창립 36주년을 맞은 동국예술기획의 명인명무전이 113회를 맞아 깊은 감회를 느낀다. 그동안 전통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기획공연은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150인의 예술인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예술혼과 열정을 기리고자 한다. 소중한 전통예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세계대전·내전 겪은 사라예보에 ‘오월광주’ 전파

이매리 작가, 현대미술 매개로 프레젠테이션 성향

2025사라예보국제북페어 무대서 5·18과 한강 설명

전쟁사를 예술로 접목한 ‘시(詩) 배달원’ 이매리 작가가 2025사라예보국제북페어를 통해 ‘광주’를 알렸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사건 배경이 된 광주를 설명하고 영상을 통해 화면이 소개되자 북페어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매리 작가는 지난 9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라예보 스킨데리아센터에서 열린 2025 사라예보국제북페어 공식 초청 프로그램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특별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치작품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Seven Thousand Stars and Promised Land) 리뷰에 나섰다.

이브라힘 스파이치 북페어 조직위원장의 소개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 작가는 전쟁사와 이주사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배경, 그리고 현재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에 대해 설명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사건의 장소이자 보스니아 내전 등 아픈 전쟁사를 가진 사라예보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전쟁사를 작업하는 작가, 그리고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광주는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매리 작가의 강연과 함께 광주를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자 북페어 행사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보스니



이매리 작 ‘호메오스타시스 사라예보’

아 하우스로 모여들었다.

이매리 작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광주에 대한 소개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 작가는 “광주는 현대미술의 현장인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중심도시이며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과 수많은 광주 시민의 희생으로 이뤄진 민주화의 성지”라고 소개한데 이어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무대가 된 도시인 광주를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페어 특별전에 설치된 드로잉과 영상 작품의 타이틀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7000명의 이민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고있는 광주의 고려인마을이 작품의 모

티브가 됐고, 7000개의 별은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의 숫자를 상징한다는 내용이다.

고려인이란 1880년대 있었던 한반도의 북쪽 지역의 기근, 세계대전과 일본의 식민지 시대, 한국의 남북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 이주했던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등에 거주하게 된 한민족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의 국민이 되거나 무국적자가 됐고 2004년경부터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한 이민자들이다.

이 작가는 “광주 안의 이주민들이 모여있는 정소를 통해 이주사에 주목했다”면서 “이주사가 인류의 전쟁사와 함께 역사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인지한 지점으로부터 탐구 영역이 확장됐다”고 밝혔다.

사라예보에서의 전시가 특별한 이유도 있다. 인류 최초의 전쟁 에덴동산의 쟁탈전부터 21세기 현재의 러시아 전쟁까지를 살펴보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보스니아 전쟁이 있었고 보스니아 전쟁 이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발칸반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가는 “전쟁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라예보에서 작가적 시선으로 현장에서 제작된 기록적 작업인 제 작품을 통해 개개인의 삶과 세계를 근원적인 층위에서 고찰해보고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Ongnam.co.kr



‘기억4’



‘기억3’

개인의 내면과 사회·문화적 맥락 탐색

서근희 작가 초대전…2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관객과의 교감을 추구해온 서근희 작가의 초대전이 11일 개막. 오는 20일까지 ‘사물, 시간을 품다’를 주제로 우제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갖는다. 출품작은 서양화 작품 14점.

작가의 작업은 개인의 내면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며,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이끌어낸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러한 영원의 순간을 포착하며, 관람객이 익숙한 사물을 통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되새길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

작가는 최근 국내외 아트페어에서 주목받으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따뜻하면서도 절제된 색채 언어로 감동을 전하

는 그의 작품은 내면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며, 현대미술의 실험성과 전통 기법의 조화를 통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박경식, 김민경 큐레이터의 공동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작가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조명한다. 박경식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익숙한 사물에 스며든 시간의 결을 따라가며, 관람객 각자의 기억과 감정이 예술로 되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사물 너머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동심·상상력 자극하는 ‘어린이날 가족극’ 만나볼까

북구문화센터서 26일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선행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기백)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특별기획 가족극 ‘고래바위에서 기다려’를 오는 26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고래바위에서 기다려’는 2021년 아동·청소년극 부문 신춘문예 수상작으로 같은 해 아동청소년대상 예술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2년간 탄탄한 무대화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2023년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했고, 2024년 아시테지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대상 및 연출상을 받았다.

작품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고래바위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바다의 상상 속 고래 뱃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블루 라이트와 바닥에 누워 연기하는 ‘늑극’ 형식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연출을 선보인다.

참여 배우들은 바닥에 누운 채로 다양한 극 행동을 펼친다. 이들의 기발한 연기는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2D 스크린으로 옮겨지며, 영상과 어우러져 바다와 우주를 넘나드는 신비하고 마법 같은 세계가 펼쳐진다. 아광으로 빛나는 해저 생물과 구불거리는 종이 오브제는 시선을 사로잡는 색다른 재미 요소다.



사진실명을 ‘고래바위에서 기다려’ 공연 모습.

나기백 이사장은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다른 공연인 만큼 지역의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3세 이상 관람가로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입장료는 1만원.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성인 관람객 위한 야간 과학문화행사

광주과학관, 25일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봄을 맞이해 ‘꽃’을 주제로 성인 관람객들을 위한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를 오는 25일 진행한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광주과학관의 특별한 과학문화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피는 봄이오면’이라는 부제로 봄꽃 음악 콘서트와 함께하는 ‘플라워 다이닝’,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영하 교수와 허재무 진행자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과 닮은 봄꽃 이야기’ 토크 콘서트, 전문가와 함께 아름다운 나만의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플라워 클래스’, 꽃차에 대해 알아보고 시음도 해볼 수 있는 ‘꽃차 소믈리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별이벤트로 참여자 중 베스트 드레서와 행사 중 꽃과 함께 촬영한 멋진 사진을 선정해 특별한



지난해 열린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기념품을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9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원.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